

것. 따라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평등성 획득의 핵심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평등성 획득은 여성들만의 문

서 인정된 이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25년 전 도입된 개인소득세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촉진시켰고 오늘날 거의 남성들과 같은 비율로 경제활동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타아를 원하는 모든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 탁아기관이 확장 설립

는, 표면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또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 성 차별에 해당한다.

현 내각의 반수가 여성 관료이며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여성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여성의 영향력 행사가 높게 평가되는 스웨덴이지만 기업체 간부의 90%와 공무원의 70%는 여전히 남성들이 점유하고

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선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남녀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그 주요 원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조심스러운 편이며 자신의 능력에 관련된 승진 기회 여부를 질문받을 때 가정, 육아의 책임과 직장에서의 책임자의 직위를 연결시켜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 이런 여성의 반응은 승진에

대한 즉각적 거절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남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가정을 절대 그들 승진의 장애 요소로 생각하지 않기에 도전 의욕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이

남자의 글쓰기 ● <평등 · 사내다움 · 부모역할에 관하여> ⑧

96.5.10

사회적 지원에도 풀리지 않는 여성의 족쇄 '가사' 남녀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 여성의 발전 가로막아 ⑧

벵트 웨스터버그 / 52세, 칼스타드대 부설 성 연구센터 연구개발 소장

나는 주당 48시간 이상을 일하여 가족을 부양한 아버지와 자녀출산과 함께 직장을 포기하고 20년 이상 가정에 머물며 네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이끄는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에서 40,5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다. 물론 아버지는 어떤 종류의 가사 분담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사회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로 떨어졌고, 60년대엔 남녀평등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남성은 '월등한' 존재이고 여성은 남성을 따르는 '종속적' 존재라는 통념 속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못하던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변화시키자는 것이 주요 정치 논쟁으로 떠오른

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 투쟁의 필연적 과정이다. 결국 남녀평등이 구현된 사회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특징이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위한 성숙 단계에 접어들 적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젠 여성이 당면한 현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1919년 여성투표권이 스웨덴에

되었다는 것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도운 중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75-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

내각의 반수, 국회의원의 40% 이상이 여성인 스웨덴이지만, 여성 급여는 남성의 75-80%에 불과 기업체 간부의 90%, 공무원의 70%가 남성

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성들이 파트타임직에 주로 종사하기에 책임자의 직위에 오르고 있지 못하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대학교수 중 7%만이 여성이다.

기업체의 여성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조사한 보고서가 최근 나왔는데 이에 따르면 남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남성들은 여성들에겐 승진할 욕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들에겐 승진할 기회

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선다. 마리안 프랑켄하우저란 심리학 교수의 연구 보고서처럼 남성 간부는 귀가하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데 반해 여성 간부는 귀가하면 '제2의 일'인 가사와 씨름함으로써 오히려 스트레스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남녀 모두 궁극적으로 가정을 수호할 책임자는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번역 · 이은경 기자)